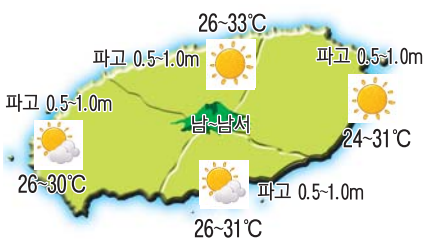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7일 월요일 음 6월 13일 (5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6℃, 낮 최고기온은 30~33℃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짙 것으로 보인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겠다.

해돋이 05:30 해질 19:47	달돋이 16:55 달질 02:00
물때 만조 07:40 21:34	간조 03:07 14:22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10%
10%	성산	10%
10%	고산	2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4/32℃
모레 ☀ 구름많음 25/31℃

월드뉴스

우크라, 러시아 공군기지 ‘격납고 타격’

러 공습으로 전력 공급선 손상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있는 보리소글렙스크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항공 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1대 등이 있는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르 구셰프 보로네시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간밤에 드론 25대가 격추됐으며 전력 공급선이 일시적으로 손상됐다고 밝혔다. 공군기지 언급은 없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드론 322대를 동원해 대규모



4일 러시아 공습으로 부서진 차량. 연합뉴스

공격을 가했으나 157대를 격추하고 135대는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총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다.

당시 공습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안을 거부한 직후 벌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지원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문미숙
제2사회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항)이 준모항으로 운영된 지 두 달을 넘기고 있지만 관광객 체류 확대와 지역에서의 소비 연계 측면에서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해외관광객 숫자는 확실히 늘려주지만 단기 체류와 저소비의 단점을 지닌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준모항은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는 항구로, 일부 승객이 탑승해 해외여행 후 돌아와 하선하는 곳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국제크루

강정항 크루즈 준모항 시대 촘촘한 대책을

즈선이 잠시 정박하는 동안 관광객들이 4~5시간 머물다 가는 기항지와는 다르다. 그래서 정부가 강정항 준모항 운영을 발표했을 때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운 지역에선 내심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해외 항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말이다. 강정항을 이용하는 내국인들이 크루즈로 일본, 중국을 여행 후 곧바로 제주를 떠나지 않고 더 머물며 지역 내 소비증대 효과를 낼 것이란 바람도 있었다.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운영한 첫 크루즈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는 아도라 매직시티호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정항에서 7차례 승객을 태웠다. 회당 30~50명의 승객 중 다수는 제주도민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크루즈 여행이 편리해지면서다. 또 지난 6월 두번째 준모항 크루즈

인 코스타 세레나호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강정항에서 세 차례 각각 승객 330명씩 총 1000명을 태웠는데, 크루즈 선사들의 강정항에 대한 관심을 엿봤다는 점은 다행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강정항 준모항 운영에 따른 내국인 추가 유치 효과가 미미한 지금, 내국인 유치 홍보마케팅과 함께 기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크루즈객의 지갑을 열게 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 348회 중 198회는 강정항으로 입항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43.5%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가 10만t 이상의 대형 크루즈 선석을 강정항으로 배정한 것도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상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정작 강정항에서 내린 적잖은 패키지 투어 이용객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제주시 면세점으로 향한다. 개별 크루

즈 관광객의 지역상권 유입을 위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귀포시가 올해 5월 하순부터 강정항에서 원도심을 잇는 노선 버스를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선버스만으론 상권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다. 크루즈 기항시간에 맞춰 개별객과 승무원 대상 원도심 도보투어나 특산물 구매·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 또 제주도가 최근 단체관광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일정 규모의 강정항 준모항 상품 이용자가 크루즈 출발 전후로 제주에서 1~2박을 더 할 경우 지역화폐 지원 등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지켜 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크루즈객들이 잠깐 머물며 폰돈만 쓰고 가는 기항지거나, 도민의 크루즈 여행 편의를 높여주는 이상의 준모항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여서다.

열린마당

눈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 안경구입비 지원



이선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장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기본통계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시력 이상 학생들이 증가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아지면서 눈의 피로가 가중되는 것도 원인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야외에서 자연광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시력 이상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늘리고 눈을 자주 쉬게

누락된 건축물 도면, 다시 찾습니다



정지영
제주시 주택과

건축물 현황도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 건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하거나 ‘세움터’ 등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도면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는 1996년부터 건축허가 시 건축물 현황도 첨부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면의 전산화가 시작되기 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수기로 도면이 보관돼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새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모두 소유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996년 이후부터 2008년 사이 허가된 건축물 중 현황도가 누락된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 기록물을 찾아 현황 형식의 발급 가능한 건축물 현황도로 제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황도가 누락됐던 건축물들도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기타 인허가 절차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사라향, 우리향, 달코미

2026년 사전예약
주문 받습니다

하례조생 3~5년생
천혜향 3년생

그 외 모든품종 보유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

감귤 신품종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히라베니(궁천변이자),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